

지역 소식통

정읍시,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기간 운영

정읍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기·유기동물 예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관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일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소유자 및 동물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동물등록 대행 동물 병원에서 가능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13억1000만원
주민세 부과·고지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사업소분) 5만 3000여 건에 대해 총 13억1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정읍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5000원~22만 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사업장에 한해 연면적 X 250원)을 합산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 체제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전년도와 사업소 연면적·자본금 등의 변동이 없는 사업자는 이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본격화

정읍시, 2027년까지 82억원 투입 환경정비사업·대상지 내 복합편의시설 조성

정읍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명동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장명동 각시디더 일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환경 정비 사업을 지원하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45억원을 포함해 총 82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의 주요 목표는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며, 대상지 내 경관과 환경을 정비해 관광자원으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 내용은 △골목길 환경정비 △20년 이상 노후 주택 수리 지원 △도로 재포장 및 주차장 구획 정비 △스마트 가로등 및 비상벨 설치 △내대지 정비 등을 통한 친환경 커뮤니티 조성 △주민쉼터와 편의·복지공간을 제공하는 각시디더 모임터 조성 등 총 6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부안군, 야생벌 보호 ESG사업 고창사랑 지정기부 모금 추진

부안군은 ‘야생벌 봉봉이를 지켜주세요!’ 라는 사업명으로 행정안전부의 지정기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의결을 마치고 올해 1억 원의 고창사랑 기부금 지정모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부자를 ‘봉봉이 멤버’로 지정해 기부자에게 나만의 특별한 기부로 느끼는 효과를 줘 기부금 모금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야생벌 비호텔(Bee Hotel) 설치, 꽃씨 배포 및 농약병 수거 사업 등 야생벌을 살리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기업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으로 친환경 사업을 늘려가는 추세 속에 군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고창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고창사랑 홈페이지 내 특정사업에 기부하기를 통한 온라인 기부 또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에서 지정기부 사업을 특정해 오프라인 기부를 할 수 있다.

군은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안사랑부안지킴이 봉봉이’라는 캐릭터를 발굴하고 고창사랑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지정기부 사업은 군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기부해주신 국민들도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중한 기부금이 깨끗한 환경과 밝은 미래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역량강화 과정 개강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8월 고창군 군민복지회관에서 고창군 여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강화를 개강했다.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는 총 4개 과정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여성 리더십과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역량강화 과정, 행정분야 과정, 경제분야 과정, 여성리더 특강 등 보다 전문적인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역량강화 과정으로 ‘책으로 찾는 색다른 나’, ‘나도 이제 SNS 전문가’ 등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최선임 고창군 인재양성과장은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 과정을 통해서 여성이 지역 내 리더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활력고창 여성아카데미는 총 4개 과정으로 올해는 역량강화 과정, 행정분야 과정, 경제분야 과정, 여성리더 특강 등 보다 전문적인 여성 인재 발굴을 위한 과정이 운영될 예정이다.

제22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11월17일 개최

마라톤을 사랑하는 전국 마라토너들의 흥겨운 축제인 ‘제22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가 오는 11월17일 고창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종목은 건강코스(5km), 단축코스(10km), 하프코스(21.0975km) 3종목으로 참가비는 건강코스는 1만원, 단축·하프코스는 3만5천원이다. 대회는 고창단체육회와 고창군육상연맹이 주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와 고창군이 후원한다.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유네스코 7가지 보물과 함께 달려요’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11월 셋째주 일요일에 2024년 마지막 마라톤을 개최한다.

지난해 5월 고창군은 병마위와 무장포고문이 유네스코에 등재됨으로써 유네스코가 인정 7개의 보물을 보유한 한국 최초의 생태문화도시가 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세계가 인정 유네스코 보물과 함께 깊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참가신청은 10월25일까지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홈페이지(www.goun.com)와 방문(공설운동장 고창군체육회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2004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 선정

비치코딩·금속공예 등 10여가지 학습 콘텐츠 제공 달리는 배움버스 운행

부안군은 교육부에서 주최한 2024 지역평생교육활성화 공모 사업에 달리는 배움버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달리는 배움버스는 지역 주민들에게 창의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주요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복지형 테마를 기반으로 운영을 시작한 달리는 배움버스는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역내 복지시설을 순회하며 비치코딩, 금속공예, 파이로그래피 등 10여개의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지역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게 열린 학습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의 지원과 전문성을 결합해 이동식 학습환경을 구축했다.

군은 달리는 배움버스 운영을 위해 선한나무, 부리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도나스 픽처스, ㈜에듀리움 등 4개 민간기관과 전략적 협약을 통해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체계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 추가 접수

정읍시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추가신청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안정지원금은 민생기 공약사업으로 경기침체와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정읍시에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이다. 단, 공동대표인 포함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된다.

지난 5월에 지급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와 2023년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 휴·폐업자,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시에서 정한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액 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50만원이 지급되며,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등을 확인한 후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